

17世紀 國語의 多義語 研究(I)

金 泰 琨*

目 次	
I.	序 論
II.	多義語의 生成過程
1.	意味間 類似認識
2.	意味間 隣接認識
3.	婉曲表現
III.	結 論

I. 序 論

우리 人間이 사용하는 言語는 살아 움직이는 有機體와도 같아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한 변화는 음성으로 나타나는 語形뿐만 아니라 意味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어떤 한 單語(N_1)가 가지고 있는 意味(S_1)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든지 의미변화를 일으키어 새로운 意味(S_2)가 生成돼 원래 意味와 공존할 때, 그 單語는 多義語(polysemic word)가 된다. 이러한 多義語가 생겨나는 원인은 言語의 經濟性으로 흔히 설명하는데, 이는 수없이 생겨나는 사물에 대하여 힘들어 새로운 單語를 만들지 않고도, 기존의 單語에 해당되는 意味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多義語란 하나의 單語(語形)에 둘 이상의 意味를 保有하고 있는 것인데, 그 意味들 사이에는 有緣性이 있어야 하는 단어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17세기 국어에서 발견되는 多義語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들의 意味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들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語彙의 의미변천 과정을 通時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Dept. of Korean Language Edu., Cheju Univ., Cheju-do, 690-756, Korea)

的인 면에서 추적하는 것은 꼭 필요한 연구이다. 그러나 그러한 通時的 研究을 하기 위해서는 共時的 研究가 先行되어야 한다. 그래서 본고는 17세기에 해당되는 문헌에서 多義語를 조사하여 이들의 意味性과 生成原因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II. 多義語의 生成過程

多義語의 生成은 우선 어떠한 단어의 의미변화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語形(名稱)에 딸린 원래의 意味(S₁)에서 의미변화를 일으켜 다른 意味(S₂)가 생겨나 이들 두 意味가 공존할 때 우리는 이를 多義라고 한다.

Ullmann은 의미변화를 다음과 같이 기능적 분류로 나누어 설명했다.

- A. 언어적 保守主義에 의한 의미변화.
- B. 언어적 改新에 의한 의미변화
 - 1. 이름의 轉移
 - (a) 뜻 사이의 類似에 의한
 - (b) 뜻 사이의 隣接에 의한
 - 2. 뜻의 轉移
 - (a) 이름 사이의 類似에 의한
 - (b) 이름 사이의 隣接에 의한
 - 3. 複合變化¹⁾

특히 Ullmann은 의미변화를 「언어적 改新에 의한 의미변화」에 깊은 관심을 두어 의미변화의 성질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제시했다.

- 1. 의미의 類似(隱喩)
 - (1) 擬人觀的 은유
 - (2) 동물적 은유
 - (3) 具體에서 抽象으로
 - (4) 共感覺的 은유
- 2. 의미의 隣接(換喩)
- 3. 名稱의 類似(民間語源)
- 4. 名稱의 隣接(省略)²⁾

여기서 聯想에 의한 類似와 隣接에 바탕을 둔 의미변화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미변

1) S. Ullmann著·南星祐譯, 「意味論의 原理」, 탑출판사, 1981, p. 237.

2) S. Ullmann著·南星祐譯, 「意味論」, 탑출판사, 1987, pp. 290~313.

화의 심리적 요인은 그 근저에 반드시 심리적인 聯想에 의한 聯合關係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多義語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계기를 '類似'와 '隣接'이라는 심리적 聯想에 의한 측면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1. 意味間 類似認識

가. 適用의 轉移

어떤 단어는 사용되는 文脈에 따라 여러 가지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나타낸다.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原義(중심의미)에서 그 文脈에서만 짐작될 수 있는 聯想意味를 생각해 내는데 이들 의미 사이에는 意味的인 有緣性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聯想된 派生意味는 일시적으로 사용되다가 사라진 경우도 있고, 영속적인 의미를 획득한 경우도 있다. 17세기 국어에서 이러한 원인으로 生成된 多義語를 살펴본다.

(1) 가르치다

① 가르치다[敎]

글 가르치다(敎書)(譯上 15)

두 아들을 가르치며 치더니(敎育二子)(新續 烈 8:57)

② 가리키다[指]

君王이 白日을 가르치시닛다(君王指白日)(杜重 4:13)

위의 예문 ①의 의미에서 ②의 의미가 意味間的 類似로 생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가리키는 것도 가르쳐 주는 것의 일종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국어 맞춤법은 '가르치다'[敎]와 '가리키다'[指]로 區別表記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言衆들에게 誤發音이나 誤記를 곧잘 하게 하므로 이러한 區別表記가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2) 고티(회)다

① 辨別

고티요리라 호니 그리 이디 아니호도다(欲辨不成書)(杜重 4:35)

어느 能히 皇州를 고티리오(焉能辨皇州)(杜重 9:33)

② 選擇

밀 닷 되를 경히 고티여 복가(麥五升取精妙)(敎補 11)(가람본)

버거 中男을 고티야 네라 호다(次選中男行)(杜重 4:5)

현대국어 '가리다'에 해당되는 '고티다'는 17세기에 위의 예와 같이 '辨別'과 '選擇'의 뜻으로 쓰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을 선택할 적에는 구별하여 그렇게 하므로 上例 ①이 原義이고 ②가 派生의미라고 생각된다.

(3) ㄹ(ㄹ)

① 가, 가장자리(邊)

ㄹ툼 ㄹ이 ㄹ툼 비리 투콰(江邊借馬騎)(杜重 7:17)

지아비툼 조차 강물ㄹ 바회 퉁에 수머(從夫匿江上巖穴)(新續 烈 5:41)

② 邊方

ㄹ잇 그러기는 時節로 다뭇 뜬거늘(塞雁與時集)(杜重 2:25)

ㄹ이서 도로혀 兵戈툼 쓰느다(邊隅選用兵)(杜重 10:47)

③ 地域

다른 ㄹ에 내 외로윈 자새 와 늣노라(異域賓客老孤城)(杜重 3:34)

먼 ㄹ이 붉비치 改變호도다(絕域改春華)(杜重 7:15)

④ 끝

내 주류믄 엇뎨 ㄹ이 업스리오(我飢豈無涯)(杜重 12:20)

‘ㄹ’은 後期中世國語에서는 ‘ㄹ’으로 표기되고 母音 사이에서는 ‘ㅅ’이 ‘△’으로 쓰였던 것인데, 17세기 국어에서는 ‘△’이 소멸되는 바람에 위의 예에서와 같이 ‘ㄹ’로 대부분 표기되어 사용되었다. 위의 예에서 보듯 ‘ㄹ’은 原義 ‘가장자리’의 뜻에서 適用的 轉移로 변방, 지역 등의 의미로 쓰였고, ④에서와 같이 ‘끝’이라는 의미로도 쓰였는데, 이는 후에 ‘가이 없다’라는 관용적 표현으로 굳어졌다.

(4) 그르다

① 매거나 감겼던 것을 풀다.

스스로 목줄라 호마 주걸다가 권당돌히 구호야 그르뭇 힘 니버 사르물 언다(自縊幾死賴族黨救解得甦)(新續 烈 2:18)

② (옷 등을) 벗다

자매 오솔 그르디 아니호니라(寢不解衣)(新續 烈 2:18)

‘그르다’는 中世國語에는 ‘그르다’로 표기되었던 것인데 17세기에는 ‘그르다, 그르다’로 混記하고 있다. 이 말이 위의 예 ②에서와 같이 適用的 轉移로 ‘脱衣’의 뜻으로도 쓰였는데, 後期中世國語에서는 이러한 의미로는 ‘그르다’가 쓰이지 않았고 현대국어에서도 쓰이지 않는다. ‘그르다’가 硬音化되어 현대국어에서는 ‘끄르다’라는 단어로 쓰이는데, 이 말이 직접 ‘脱衣’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고, ‘옷의 단추를 끄르다’ ‘허리띠를 끄르다’라는 예문에서 보듯, 옷의 부속품인 목적어들을 서술하고 있다.

(5) 글월

① 글(文)

耒陽이 글워툼 들어(耒陽馳尺素)(杜重 1:57)

② 계약서, 文書

글월 쓰자(寫契)(老諺 下 13)

글월을 늘로 하여 쓰이료(文契着誰寫)(老諺 下 13)

③ 冊, 書籍

주여근 글월 일흠미라(正俗 5)(규장각본)

몹 글월 一萬卷을(群書一萬卷)(杜重 19:28)

이것은 위의 예 ①의 의미 '글'에서, ②③의 예에서 보듯, '契約書, 文書, 서적' 등의 의미로 轉移되어 쓰였다. 책 속에 글이 있기 때문에 '內容'과 '容器' 사이에서 쉽게 轉移가 이루어진 것이다.³⁾

(6) 집다

① (옷을) 집다

집다(補綻)(譯 下 7)

② 補修하다

薛羅를 쓰어다가 새집 헌 더틀 집노라(牽羅補茅屋)(杜重 8:66)

위에서 ①의 예 '옷을 집다'와 ②의 예 '집을 보수하다'는 기능상으로 類似하여 쉽게 轉移되어 후자의 의미로도 쓰였다. 이러한 적용상의 전이는 집는 대상에 따라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中世國語에서 '補土하다'의 의미로도 쓰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⁴⁾

(7) 놓다

① 가축을 어디에 있게 하다.

모든 더위에 드르히 노티 말고(酷熱不可野放)(馬諺 上 94)

밤이어든 오향의 노코(夜散於廐)(馬諺 下 40)

② 架設하다

山을 만나 길을 열고 물을 만나 다리물 놓는다 하노니라(逢山開路遇水送橋)(朴諺 中 33)

다리 노타(打橋)(譯 上 14)

③ 釋放하다

도적이 감동하야 노라눌(賊感而釋之)(新續 孝 1:31)

도적이 둘 다 노하니라(賊兩釋之)(新續 孝 7:44)

④ 防火하다

불 노타(放砲)(譯 上 20)

⑤ 그만 두다

學에서 선빅 노타(放學)(譯 上 15)

'놓다'의 原義는 '일정한 자리에 두다'의 뜻으로 ○책을 책상 위에 놓다. ○의자를 놓고 앉다.

3) 이러한 '內容'과 '容器'와의 관계에서 의미변화가 생기는 것을 換喩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大殿→王, 中殿→王妃, 東宮→王世子, 北堂→어머니, 집→가족

4) 金泰現, "中世國語의 多義語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89, p.27.

등의 예문을 들 수 있다. ‘눅다’가 이러한 原義의 의미로 中世國語에서 많이 쓰였고,⁵⁾ 17세기국어에서도 쓰였겠지만 문헌에서 用例를 찾지 못했다. 이러한 原義에서 위의 예 ①~⑤와 같은 의미가 파생하여 의미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8) 닉다

① 煮

거른 콩을 닉게 볶가(黑豆炒熟)(教補 5)(가람본)

몸소 니겨 버 계스툼 공급하더라(新續 孝 7:4)

② 여물다

모밀이 반만 니겨(木麥半熟)(教補 2)

四月에 누른 梅實이 니겝도다(四月熟黃梅)(杜重 12:25)

위의 예에서 ①의 ‘닉다’는 날것이 불을 때서 생기가 없어지게 한 것이고, ②의 ‘닉다’는 ‘여문 것’을 뜻한다. 그래서 양자 사이에는 ‘날것이 아니다’라는 공통점이 있어 쉽게 연상되어 의미의 轉移가 이루어졌다.

(9) 드리

① 다리(橋)

드리(橋)(譯上 14)

딩검드리(跳過橋)(譯上 14)

② 사닥다리(梯)

사드리(梯)(譯上 14)

구름 선 드리예 올라가눏다(上雲梯)(杜重 1:23)

‘드리’가 위의 예 ②와 같이 ‘梯’의 의미로도 쓰이게 된 것은,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준다는 기능적 類似에서 쉽게 轉移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세국어에서는 層階를 나타내는 의미도 ‘드리’가 가지고 있었으며(드리계:階<石千 20>), 契機의 뜻도 있었다(禍이 드리는 처엄 누리 하리툼 지니:禍階初負謗<杜初 24:30>). 현대국어에서도 중개, 매개의 뜻으로 ‘다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다. ○몇 다리를 거쳐서 그를 소개받았다. ○내가 그와 다리를 놓아 주겠다.

(10) 되다

① 죽 같은 것이 물기가 적다.

된죽(稠粥)(譯上 49)

② 진하다

먹 되게 2다(擘墨稠)(譯下 49)

5) 上掲論文, p.28.

③ 심하다

된서리(嚴霜) (譯上 2)

‘되다’는 위의 예 ①에서와 같이 밥이나 죽 같은 것이 물기가 적어서 딱딱한 것을 이르는데, 의미 사이의 類似로 轉移되어 ②와 같이 ‘진하다’의 뜻으로도 쓰였다. 또한 ‘되다’가 접속사 ‘된-’으로 변하여 17세기에 ‘된죽, 된서리’ 등의 어휘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어휘형성은 이후에도 꾸준히 이루어져 현대국어에서 된바람, 된밥, 된소리, 된시름, 된시웃, 된장 등의 단어가 사용된다.

(11) 두텁다

① 敦篤하다

형제로 더브러 사랑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더라(與兄弟友愛彌篤) (新續 孝 4:86)

② 심하다

슬피 설워하기를 더욱 두터이 하더라(哀毀愈篤) (新續 烈 6:3)

③ 위독하다

그 어미 병이 두텁거늘(其母病篤) (新續 孝 6:84)

지아비 병이 두텁거늘(夫病篤) (新續 烈 5:5)

‘두텁다’의 原義는 ‘물체가 두껍다’의 뜻인데 여기서 轉移된 추상화로 위와 같이 ‘돈독하다, 심하다’ 등의 뜻으로 17세기 국어에서 쓰였다. ‘두텁다’가 중세국어에서 ‘두껍다’의 뜻으로 쓰인 예는, <귀 두텁고 넓고(月釋 2:56)>를 들 수 있다.

(12) 든겁다, 돛겁다

① 두껍다

두꺼운 조리와 두에톨(厚紙及盖子) (痘經 50)

기르마 지치 슬흔 돛겁고(排鞍肉厚) (馬諺 上 4)

② 질다

봄비치 날마다 제 든겁도다(春光日白濃) (杜重 10:9)

아름다운 氣運이 돛겨우니(佳氣濃) (杜重 13:3)

③ 많다

流離야 든노매 님긔 恩惠 든겁도다(流離主恩厚) (杜重 2:31)

豪華한 지의 브디 죽모 돛겁도다(豪華意頗濃) (杜重 7:33)

후기 중세국어에서는 ‘두텁다’와 ‘든겁다’가 모두 현대국어 ‘두껍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17세기 국어에서는 앞의 (11)에서 보듯 ‘두텁다’는 그러한 의미는 없고, 위의 예 ①에서와 같이 ‘든겁다’만이 ‘두껍다’의 의미를 유지했다.

‘든겁다’가 위의 예 ②③에서 보듯 ‘질다, 많다’라는 추상화된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13) 뜰

① 생각, 意思

네 널오미 맞치 내 뜻과 ㄹ다(你說的恰和我意)(老諺 上 10)

아비 뜰을 조차(從父志)(新續 孝 1: 45)

② 意味

女戒類를 사김 사겨 대강 큰 뜰들 알게 ㄹ라(女戒之類略曉大意)(家諺 2: 25)

젊어서 효경과 녀녀던을 널거 뜰들 아더니(幼讀孝經烈女傳通大意)(續三 烈 7)(重刊本)

③ 志操

도적이 성히 꺾박호더 그 가진 뜰들 고티디 아니 ㄹ니라(寇賊迫不易其操)(新續 孝 1: 52)

어미 뜰들 앓고져 ㄹ거늘(母欲奪志)(新續 烈 1: 35)

④ 마음, 感情

사로매 逼迫호니 지비 도라와도 즐거은 뜰디 적도다(迫儉生還家少歡趣)(杜重 2: 66)

⑤ 情趣

千秋萬古엿 뜰들 ㄹ장 보리로다(見千秋萬古情)(杜重 14: 1)

위의 예에서 보듯 고유어 名詞 중 ‘뜰’이 가장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多義語인데 後期中世國語에서는 意思, 意味, 趣旨, 意志, 所望, 感情, 情趣, 事由, 意義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⁶⁾

(14) 들다

① 들어오다(入)

이시면 사오나온 사롬이 들리라 ㄹ니(有則惡人入)(警民 36)(改刊本)

② 어떤 때가 되다

오늘은 밤이 드러시니(新語 1: 13)

밤이 드러 보디 몬 ㄹ니(新語 1: 14)

③ 병이 생기다

병 드르시다 듯고 넘녀 ㄹ옵더니(新語 3: 2)

밖에서 안으로 향하여 움직이다는 뜻의 原義에서 위의 예 ②③과 같은 의미로 쉽게 연상되어 轉移되었다. 이러한 派生의미는 현대국어에서 위의 예 말고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쓰인다.

㉠ 호텔에 들 부부(居處)

㉡ 클럽에 들다.(加入)

㉢ 옷에 물감이 들다.(染)

㉣ 경비가 들다.(所用)

㉤ 흥년이 들다.(成)

㉥ 마음에 들다.(好感)

6) 上掲論文, pp. 36~37.

- ㉠ 감자알이 들다. (肥)
- ㉡ 나이가 들어 보인다. (滿)
- ㉢ 고생줄에 들다. (立)
- ㉣ 증매를 들다. (介)
- ㉤ 버릇이 들다. (習)
- ㉥ 음식에 맛이 들다. (生)

(15) 디다

① 떨어지다

복성고존 ㅁ노리 버들고줄 조차 디고 (桃花細逐楊花落) (杜重 11 : 20)

② (해, 달이) 지다

돌 디다(月兒落) (譯上 1)

ㅁ는 ㄷ리 디건디 ㅎ마 오라니(微月沒已久) (杜重 1 : 29)

③ 내리다

이슬 디다(下露水) (譯上 2)

④ 끼다

안개 디다(下霧) (譯上 2)

⑤ 낙방하다

科擧 디다(下弟) (譯上 16)

⑥ (값이) 싸다

빛감시 싸던가 디던가(布價高低磨) (老諺 上 8)

위의 예에서 보듯이 '디다'가 原義 '떨어지다'(落)의 의미에서 '해·달이 지다, 이슬이 내리다, 안개가 끼다, 과거에 떨어지다, 값이 싸다'의 뜻으로도 쓰여 다양한 의미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것은 17세기 국어 '디다'가 현대국어 '지다'보다 더 多義的인 面이 있었음을 보여주는데, 지금도, '해·달이 지다'는 쓰이고 있으나 '이슬이 디다'는 '이슬이 내리다'로, '안개 디다'는 '안개가 끼다'로 (17세기 국어에서도 '싸다'가 쓰이기는 했다. 안개 싸이다(譯上2)), '과거 디다'는 '과거에 떨어지다'로, '값이 디다'는 '값이 싸다'로 쓰인다.

(16) 디르다, 디르다

① 찌르다(刺)

고기 디르다(插魚) (譯上 23)

② 끼다(叉)

풀스당 디르다(叉手) (譯上 39)

③ (불을) 일으키다

성이 함꺾거든 불 디르라 꺾니(城陷火之)(新續 忠 1: 53)

④ 부딪치다

큰 뱃줄 달려 가져갔더니(大船斷將去了)(朴諺 中 13)

原義 ‘찌르다’ (刺)에서 위의 예 ②~④와 같은 뜻으로 轉移되어 쓰였는데 이것은 ‘行動의 類似’에서 의미가 쉽게 轉移된 것으로 보인다.

디르다(디르다)가 현대국어에서는 ‘지르다’와 ‘찌르다’로 語形이 分化되어 쓰이고 있는데 의미가 상당히 확대되었다.

(17) 덕다

① 찍다(點)

장 덕어 먹다(蘸醬喫)(譯上 53)

참기름을 코 굿히 덕고(以香油抹鼻端)(辟新 16)

② 쪼다(啄)

가마괴……큰 지불 디그니(鳥……啄大屋)(杜重 8: 1)

‘덕다’가 현대국어에서는 ‘찍다’와 ‘쪼다’로 語形이 分化되어 쓰이고 있지만, 중세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17세기 국어에서도 ‘덕다’가 兩義를 포함하고 있다.

(18) 므르

① 마룻대

덜 므르와 보히 물어데쇼물 니르느니(告訴棟梁摧)(杜重 9: 28)

② 신체의 뼈대

므르(脊樑)(譯上 17)

다리스 므르(腿頂骨)(譯上 36)

곳몰릭(鼻梁)(痘要 下 51)

등므르는 편꺾고(脊樑欲平)(馬諺 上 4)

원래 ‘므르’는 ‘棟’의 뜻으로 가옥에서 뼈놓을 수 업는 中樞다. 여기서 연상하여 위의 예에서 보듯, 형태와 기능이 類似的한 身體의 脊과 같은 주요한 뼈대에 ‘므르’字를 써서 명칭으로 했다. 또한 중세국어에서는 ‘므르’가 抽象化하여 基準, 要旨의 뜻으로도 쓰였었는데” 17세기 국어에서는 추상화된 의미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19) 머리

① 頭部

도적기 그 머리톨 버히고 가니라(賊斷其頭而去)(新續 烈 7: 86)

7) 上揭論文, p. 92.

② 꼭대기 부분, 끝 부분

- ㉠ 브억머리와 어귀에(胎産 31)
- ㉡ 두 머리에 보람 두엇느니(兩頭放着印記裏)(老諺 下 55)
- ㉢ 항문머리 브르와다 나(肛頭糞出)(馬諺 下 9)
- ㉣ 曲江머리에(曲江頭)(杜重 6:9)

身體에서 머리(頭部)의 위치와 물건, 물체, 자연물의 끝부분의 위치가 類似하므로 '머리'라는 단어가 쉽게 轉移되어 쓰였다. 위의 예 ②에서 보듯, ㉠은 부엌머리, ㉡은 베(布)의 머리, ㉢은 항문머리, ㉣은 江머리의 예인데 각각 끝 부분을 가리키고 있다. 현대국어에서도 산머리(上部), 발머리(前部) 등의 어휘가 쓰이고 있다.

(20) 모

- ① 모서리
 - 여덟모 연(八角鶴兒)(朴諺 上 17)
- ② 모퉁이
 - 더 西南 모해(那西南角上)(老諺 下 1)
 - 나툼 爲하야 뵈 모홀 7러치는다(我指山隅)(杜重 4:7)

위의 예에서 ①의 의미는 현대국어 '모서리'의 뜻으로 이것은 물건의 모가 진 가장자리를 가리킨다. 그리고 위의 예 ②는 현대국어 '모퉁이'의 의미인데 이것은 길, 집, 담, 산 등의 구부러져 거나 꺾어져 돌아간 자리를 가리킨다. 이 양자의 의미가 類似하여 쉽게 轉移되었는데 이들의 의미를 17세기 국어에서는 '모'라는 단어로 다 표현했으나 현대국어에서는 이들 의미를 구별하기 위하여 모서리, 모퉁이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한편, 17세기 국어에서 위의 예 ②의 의미로 '모퉁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다.

- 양저제 모퉁이를 향하야 가니라(往羊市角頭去了)(老諺 下 1)
- 東녀 모퉁이에(東角頭)(朴諺 上 55)

그러나, 이 말이 근세국어에서는 쓰였으나 그 후 活性化되지 못하고 현대국어에서 '모퉁이'가 쓰이고 있는 것이다.

(21) 모달다

- ① 사납다(猛)
 - 모던 범이 내 앞피 서 이시니(猛虎立我前)(杜重 1:3)
 - 꾸짖는 소리롤 더욱 모달게 하니(罵聲愈厲)(新續 烈 8:20)
- ② 惡하다
 - 모던 일후믄 幸혀 바사나(惡名幸脫)(杜重 5:33)
 - 입 안해 스서 드러 모던 독괴롤 프리버리면(抹入口中解惡毒)(痘要 上 4)

③ 壽하다

돌건 서늘호미 더웁 모지로몰 헤터니(淸涼破炎毒)(杜重 12:26)

이러티 아니호면 심히 치우른 엇대 7장 모달리오(不爾苦寒何太酷)(杜重 10:42)

④ 심하다

消渴入病이 안호로 서르 모디도다(消中內相毒)(杜重 6:51)

위의 예 ①~④는 의미상 類似性이 있으면서도 차이점이 있다. 위의 예 ①에서 보듯 '모달다'가 '猛'의 뜻으로 쓰였고, 현대국어 '사납다'의 17세기 국어 語形인 '사오납다'는 '猛'의 뜻이 당시에는 없었다. 당시에 '사오납다'는 劣等, 劣惡, 弱 등의 뜻이 있었다. 그리고 '모달다'는 17세기에 口蓋音化가 되어 '모질다'가 되었는데 위의 예 ③ 杜詩諺解重刊本에 나타난다.

나. 意味의 抽象化

具體的事物, 事實의 印象을 표시하던 말이 抽象的인 사항, 精神을 표시하는 의미로 轉移되는 것이 있다. 이러한 의미의 抽象化의 原因은 思考領域이 확대되고 어휘사용 빈도가 증가하는 데서 유래한다. 즉, 思考領域의 확대로 抽象的인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를 찾지 못할 때 新造語보다는 기존의 具體語에 抽象的인 의미를 부여하여 언어의 경제성을 꾀하는 것이다. 예로써, 거울(鏡) → 模範 · 龜鑑, 木鐸 → 教導 · 啓蒙, 階梯(계단과 사다리) →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된 형편이나 기회, 桎梏(차고와 수갑) → 束縛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抽象化는 具體感覺과 抽象感覺 사이의 類似에 의한 轉移로 볼 수 있다.

(1) 곁오다

① 나란히 하다, 아우르다(並)

다리를 곁와 든니는 이논(並脚行)(馬諺 上 76)

밭 시른 비 곁와도다(並米船)(杜重 2:26)

② 견주다, 겨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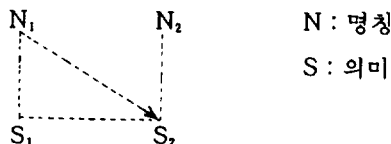
비치 노파 곁오리 업스니(符彩高無敵)(杜重 8:26)

나란히 하다, 아우르다의 뜻에서 겨루다(對敵), 견주다(比較)의 뜻으로도 抽象化하여 쓰인 것인데 후에 위의 예 ②의 의미로는 '곁오다'라는 語形으로 변모하여 語形의 分化가 이루어졌다.

곁오다(比併)(譯下 48)

힘 곁오다(屨罷)(譯下 48)

이것을 Ullmann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했다.



N_1 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의미 S_1 과 파생의미 S_2 에서, S_2 에 대한 새로운 명칭(N_2)이 생겨나 독립하게 된다.⁸⁾

여기서 N_1 은 '굴오다', S_1 은 '나란히 하다', N_2 는 '걸오다', S_2 는 '전주다·겨루다'이다.

(2) 그르다

① 매거나 감겼던 것을 풀다.

스스로 목 줄라 ㄱ 마 주건다가 권당돌히 구 ㄱ 야 그르물 힘 니버 사르물 언다. (自縊斃死賴族黨救解得甦) (新續 烈 2:18)

② 解消하다

消息이 眞實로 傳 ㄱ 야 내 시르물 그르누다(消息眞傳解我憂) (杜重 8:41)

위의 예에서 보듯이 '그르다'는 抽象化되어 '解消하다'의 뜻으로도 쓰였는데 이 단어의 현대국어 '끄르다'는 그러한 抽象化된 의미 '解消하다'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고 있다. 대신 '풀다'라는 단어가 현대국어에서 그러한 의미로 쓰이고 있다.

(3) 그물

① 魚網

물고기 잡는 오란 그물(故魚網) (東醫 湯液篇 1:21)

② 災害 등에 관련됨을 비유

구윳지비 期限이 있느니 亡命 ㄱ 면 災禍 ㄱ 그므레 버물리라(公家有程期亡命嬰禍羅) (杜重 5:26)

위의 예 ②는 亡命하던 災禍의 그물에 연루되리라의 풀이이므로 具體語 '그물'이 어떠한 재해나 이해에 관련됨을 비유하여 이룬 말이다. '그물'이란 단어가 抽象化된 뜻으로는 중세국어에서도 佛經諺解類에서 쓰였으며,⁹⁾ 현대국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다. 예로써, ○ 사기꾼의 그물에 걸려 들었다.

(4) 깃다

① (옷을) 깃다

깃다(補綻) (譯下 7)

② 補佐하다

聖明 ㄱ 신 朝를 깃수을 줄 업도다(無補聖明朝) (杜重 2:21)

朝廷에서 衰職을 뒤 다투와 기오리오(朝廷衰職誰爭補) (杜重 5:46)

8) S. Ullmann著·南星祐譯, 1981. 前掲書, p.239.

9) 金泰現, 前掲論文, p.83.

‘깁다’의 原義는 ‘찢어진 것을 꿰매다’의 뜻인데, 이것과 의미의 類似性이 있는 ‘보좌하다’의 뜻으로도 抽象化하여 쓰인 것이다. 현대국어에서는 ‘깁다’가 이러한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대신 한자어 ‘補佐하다’가 쓰이고 있다.

(5) 닉다

① 煮

거른콩을 닉게 볶가(黑豆炒熟)(教補 5)(가람본)

② 익숙하다

네 물 갖기 니근듯하괴야(你敢慣打水)(老諺 上 31)

넛다(面熟)(譯下 44)

궤를 버므렛는 길히 니그니(綠江路熟)(杜重 7:1)

(6) 닙다

① 着衣하다

오술 닙드라(穿衣裳)(老諺 下 46)

니불 탁: 着(訓蒙 下 19)

② (영향을) 받다, 당하다

소김을 닙다(喫哄)(譯下 43)

將帥 닙금 恩澤을 니브나(將帥蒙恩澤)(杜重 5:13)

해호물 니브니(被害)(新續 孝 6:15)

지아비 죄 니버 죽거늘(夫被罪死)(新續 烈 2:24)

原義 ‘(옷을) 입다’의 뜻에서 의미의 類似로 위의 예 ②와 같은 抽象化된 의미로 쓰였는데, 이것도 대상이 속임, 은혜, 害, 罪 등 여러 가지이다. 한 단어가 抽象化된 의미를 얻어 폭넓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락

① 몸이나 물건에 묻은 더러운 물질.

락 지고 바래 보서니 업도다(杜重 1:5)

② 마음을 더럽히는 작용

님금과 臣下애 허물와 락 이쇼물 츄브시니(君臣忍瑕垢)(杜重 1:52)

이것은 原義 ‘물질을 더럽히는 때(垢)’에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비유하여 생겨난 의미로 具體語에서 抽象化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런 抽象化된 의미는 중세국어에서는 佛經諺解類에서 많이 쓰였고 현대국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8) 드물

① 티끌

복톱과 드트레 머리 돌아보고(回首風塵)(杜重 21:5)

② 俗世의 어지러운 것

ᄃ마 城郭ᄃ 밧과 나 드트렛 이리 저고물 아노니(已知出郭少塵事)(杜重 7:2)
 朝廷에 비록 幽王ᄃ 禍亂이 업스나 시러곰 드트롤 다시 니버 겨샤물 설워티 아니ᄃ야리아
 (朝廷雖無幽王禍得不哀痛塵再蒙)(杜重 5:51)

중세국어에서 '드름'이 佛經諺解에서 煩惱, 雜스러운 일 등의 抽象化된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말이 佛家에서 많이 사용된 단어로 보인다. 그리고 17세기 국어에서도 위의 예 ②에서와 같이 '속세의 어지러운 것'등을 나타낼 때 비유적으로 '드름'이 많이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9) 덕회다

① 守備하다

성을 구디 덕회엿다가(城固守)(續三 忠 2)(重刊本)

② 생각을 굼히지 아니하다

종시히 삼가 이 경계롤 덕회라(終始諍守此戒)(痘經 14)
 절을 덕회여 주그니라(守節而死)(新續 烈 2:2)

'덕회다'가 原義 '육체적인 지킴'의 뜻에서 위의 예 ②와 같이 '정신적인 지킴'의 뜻으로도 轉移하여 쓰인 것이다.

(10) 덜다

① 진하다

디튼 뉴황밧체(老諺 下 22)

② 甚하다

지아빅 병이 덜거늘(夫病篤)(新續 烈 5:8)
 병이 디터 기절ᄃ거늘(新續 孝 9)

(11) 마르다

① 乾燥하다

이제 몰라시니(如今乾了)(老諺 下 53)
 큰 7물애 山巖이 마르니(大旱山巖焦)(杜重 12:40)

② 급하다

성 마르다(性急)(譯上 38)

'마르다'가 원래 '물질이 마르다'의 뜻인데 抽象化되어 위의 예 ②와 같이 마음이 여유가 없고 '급하다'의 뜻으로도 轉移되어 쓰였다.

(12) 마옴

① 심장

마음과 부화의 킵이 다 크면(心肺脉俱大)(馬諺 上 22)

마음이 알르면(心痛)(馬諺 上 34)

② 마음(心)

쇠어미 병하여 촌새전을 심각하거늘 박시 마음에 비니(姑痛思黃雀煎朴氏默禱)(新續 烈 6 : 14)

가슴매 다맛는 마음 돌 소다 내요라(寫胸臆)(杜重 9 : 17)

현대국어 '마음'은 '심장'의 의미가 없지만 중세국어나 17세기 국어에서는 위의 예 ①과 같이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具象意味가 抽象意味보다 먼저 생기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마음'이 '심장'의 의미로 먼저 쓰이고 다음에 의미의 抽象化로 '마음'의 의미가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13) 물허디다

① 허물어져 내려 앉다.

물어딘 길헨 슬픔 머리 흐르눅다(壞道哀湍瀉)(杜重 6 : 1)

② (질서, 체제, 풍속 등이) 지탱되지 못하다.

宗子法이 물허디면 사물이 來處를 아디 못하야(家諺 1 : 12)

다. 意味의 具象化

다음은 原義가 抽象的인 의미인 것이 具象的 의미를 획득한 것을 살펴본다. 의미는 具象에서 抽象으로 의미분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의미가 具象化하는 예는 많지는 않다.

(1) 값

① 가격

네 모습 아라 간대로 갑술 썩오는다(你爲甚胡討價錢)(朴諺 中 57)

② 돈

갑슨 네게 잇고 物은 내손터 이시니(錢是你上有物在我根底)(朴諺 中 57)

(2) 다스리다.

① 다스리다(統治)

님금과 다못 다스리고져 ㅎ눅다(與君理)(杜初 16 : 55)

② 다듬다.

갠 하늘해 낙주를 다스리고(晴天理釣絲)(杜重 12 : 34)

③ 치료하다

良藥으로 病 다스림도곤 나으리라(強如良藥治病)(朴諺 中 18)

이 날은 닝으로 알는 증이니 온비산으로 다스리고(此謂冷痛之症也 溫脾散治之)(馬諺 上 116)

라. 共感覺的 轉移

共感覺的 轉移란 한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즉 聽覺에서 視覺으로, 味覺에서 聽覺 등으로 轉移하여 의미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 7 놀다

① 폭이 좁다.

대 7 놀니 리헛 모시 幽深 7 도다(竹細野塘幽)(杜重 9:35)

② (숨이) 微弱하다.

허리 구브러디고 숨쉬기 7 놀고(腰弓喘息微)(馬諺 上 33)

중세국어에서와는 달리 17세기 국어에서는 '7 놀다'가 '(숨이) 미약하다'의 뜻으로도 쓰였는데, 이것은 共感覺的 轉移로 視覺에서 聽覺으로의 轉移다. 그리고 현대국어에서는 '목소리가 가늘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같은 類의 것이다.

2. 意味間 隣接認識

하나의 사물(S₁)과 다른 사물(S₂)이 空間的으로 隣接하여 있거나 時間的으로 同時 또는 前後關係에 있거나, 또는 因果的 關係에 있을 때, S₁은 S₂와 隣接知覺에 의하여 聯合하게 된다.

(1) 7 옴

① 심장

7 옴과 부화의 맥이 다 크면(心肺脉俱大)(馬諺 上 22)

7 옴이 알르면(心痛)(馬諺 上 34)

② 가슴속

머리물 도르혀 보라고 7 옴을 덩다라 7 노라(廻首肝肺熱)(杜重 1:17)

이것은 Ullmann이 말한 空間的 隣接에 관한 것으로 '部分'이 '全體'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심장을 가리키는 語形 '7 옴'이 의미의 확대로 '가슴속'을 가리키게 되었다. 심장(S₁)과 가슴속(S₂)이 隣接한데서 쉽게 轉移된 것이다.

(2) 머리

① 頭部

도적기 그 머리물 버히고 가니라(賊斷其頭而去)(新續 烈 7:86)

② 頭髮

두 머리 길게 아래로 드리호고(家諺 家禮圖 11)

안해 드러 머리 업수물 妖怪 7 야(入怪鬢髮)(杜重 8:55)

이것도 頭髮(S₂)이 頭部(S₁)에 인접해 있는 데서 쉽게 轉移되어 '머리'라는 단어가 '머리카락'의 의미로도 쓰인 것이다.

3. 婉曲表現

○ 밀

① 아래(下)

츠퍼애 꼬리 밋티 ㄹ이여힐며(鞦皮磨破尾根)(馬諺 下 32)

② 항문

밋 솟는 조희(茅紙)(譯上 19)

눈에 불이 나고 미티 불어나면 이는 나코져 혼 메니(眼中生火 穀道挺迸此是欲產之候)(胎產 20)

이것은 '밀'이 위의 예 ②에서와 같이 '肛門'의 뜻으로 婉曲表現을 하여 쓰인 경우이다. 현대국어에서도 '밀'이 항문이나 陰部의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러한 것은 婉曲表現의 心理이다. 이것은 인간이 언어사용에 있어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을 회피하고 도덕적이고 품위있고 심미적인 표현을 하여 기분을 좋게 하려는 의도에서 쓰인다. 특히 이러한 것은 性, 身體, 排泄物, 죽음 등의 어휘에서 많이 사용된다.

Ⅲ. 結 論

이상과 같이 17세기 국어 多義語 중 고유어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生成過程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어휘의 의미변화의 원인을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17세기 국어에서 의미가 변화하여 多義語가 발생하는 生成過程은 주로 意味間的 類似認識과 意味間的 隣接認識, 그리고 婉曲表現의 심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17세기 국어 多義語 중 대부분이 意味間的 類似認識에서 발생되고 있다.

意味間 類似認識은 適用的 轉移, 意味의 抽象化, 意味의 具象化, 共感覺의 轉移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했는데, 많은 의미변화가 適用的 轉移와 意味의 抽象化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그르다'는 원래 '매거나 감겼던 것을 풀다'는 뜻인데, 이 의미에서 適用的 轉移로 '(웃을) 벗다'의 뜻으로도 쓰였고, 의미의 抽象化로 '解消하다'의 뜻으로도 쓰였다. 의미의 具象化의 예로는 '값'을 들 수 있는데, 이 말이 원래 '가격'의 뜻인데 具象語 '돈'(錢)의 뜻으로도 쓰였다. 意味間 隣接認識으로 이루어진 多義語는 '무음'을 들 수 있다. 이 말은 '심장'의 뜻에서 인접인식으로 '가슴속'을 의미하여 부분이 전체를 가리켰다. 婉曲表現의 심리에서 생겨난 多義語는 '밀'이 있는데, 이것은 原義 '아래'(下)의 뜻에서 轉移하여 '肛門'을 뜻하기도 했다.

Summary

A Study on 17th Century Korean Polysemic Words (I)

Tae-Gon Kim

This thesis is focused on studying the derivation and changes of meaning of polysemic words among those of many 17th century Korean words.

Derivation of polysemic words: As a method of approach to the polysemic words, we studied derivation of polysemic words by classifying them into 3categories.

- (1) Through perception of similarity between the senses
- (2) Through perception of contiguity between the senses
- (3) Though periphrastic expression

The types of 17th century Korean polysemic words derived through the perception of similarity between the senses are classified as follows.

- ① The shifts in application
- ② Abstraction in senses
- ③ Concretization in senses
- ④ Synaesthetic shifts

As a result, we found that the most numbers of derivation appeared in the category "through perception of similarity between the senses", especially in the group of "the shifts in application" and "Abstraction in senses."